

세계기독 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4: 12)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북미주 및 해외 회원

Check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 본부로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 WCNF 1946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전 화】 (310) 324-8620

【이메일】 wcnfusa@gmail.com

한국 회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가입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지부 회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 (우)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전 화】 (02)764-1227

【팩 스】 (02)764-1252

【이메일】 wcnfkorea@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 :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1-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 1005-103-276921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0-594700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3184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자동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사업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1998년 미국 LA에서 원로 기독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하는 것이 본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 1998년 4월 18일 창립, 뉴스레터 1호 발간
- 1998년 7월 27일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 협약서 체결
- 1999년 5월 20일 연변과기대에 건강센터 개설 및 의사, 간호사 파송
- 2000년 1월 제1차 정기총회 미국 LA
- 2001년 9월 연변과기대에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 파송
- 2002년 9월 8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건물 준공. (연건평 2000평, 5층)
- 2005년 캄보디아 캄뵁뵈에 누가 건강센터 준공 및 보건교사 파송
- 2006년 10월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대학에 4년제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파송
- 2008년 5월 제1회 한국-캄보디아 간호학술대회 개최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에 9만 달러 상당의 실습기자재 전달
- 2009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설립준비, 학술대회 간호분과 주관
- 2010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 2011년 미주 지부장 평양과기대 방문
- 2012년 캄보디아 캄뵁뵈에 유치원 및 예배당 건축지원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운동 (고아원지원)
- 2013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대학 설립, 간호학과장 파송
창립 15주년기념 예배 및 영적각성 대부흥회 개최
- 2015년 1월 한반도 국제통일간호학술대회 및 제8차 정기총회 개최 (미국 SF)
4월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 위원회 발족
9월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 협약서 체결
- 2016년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이불과 진료소 복구비용 지원
- 2017년 함경북도에 WCNF 제2 보건진료소 착공 (공동연대사업)
- 2018년 1월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미국 LA)
- 2019년 1월 제10차 총회 미국 호놀룰루
11월 한국지부 선교대회 개최
- 2020년 캄보디아 몬노롬에 WCNF 제3 보건진료소 착공,
제51호 e-뉴스레터 발간
- 2021년 3월 26일 제11차 WCNF 정기총회를 Zoom으로 개최
6월 17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마지막 졸업식 (졸업생 17명)
10월 2일 캄보디아 몬노롬에 WCNF 제3 보건진료소 완공 및 봉헌
11월 22일 아프리카 차드 만바에 보건진료소 기공식

contents

- 04 이사장 인사말씀 - 이송희
- 06 총회장 인사말씀 - 안젤라 서
- 07 한국지부회장 인사말씀 - 성영희
- 08 WCNF소식
- 1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오대원 목사
- 14 간호사, 예수 - 홍길복 목사
- 17 캄보디아 소식 - 신기조 선교사
- 20 봉헌예배를 드리면서 - 성진숙 선교사
- 22 니제르 소식 - 서은성/김민선 선교사
- 24 차드 소식 - 임헌진/권홍량 선교사
- 26 연변과기대 간호학부의 알파와 오메가 - 유숙자
- 28 나의 나 된 것에 감사 - 김혜량
- 30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기 - 김민주
- 32 신입평생회원
- 33 미주 및 해외 지부 후원 내역
- 34 한국 지부 후원 내역
- 35 한국 지부 회원가입신청서
- 36 한국 지부 CMS신청서
- 37 미주 및 해외 지부 회원가입신청서
- 38 본부 및 각 지부 현황
- 39 WCNF Family Camp 안내



인사 말씀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이사장
이 송 희

먼저,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20년사를 출판하게 됨을 축하 드립니다. 유숙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집필에 수고하셔서 이루신 결실에 치하를 드립니다. 얼마 전 17급 학생들의 졸업을 마지막으로 간호학부가 폐교되어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학교의 20년사를 되돌아보면 얻는 교훈이 적지 않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선교 재단으로서, 교육 재단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에 재미교포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뜻을 모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창립하고, 창립 회원들은 첫 Vision Trip을 연변과기대로 하였습니다. 연변은 같은 동포인 조선족들이 있는 곳이고 또한 북한과도 근접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간호사들을 양육하여 앞으로 통일될 조국에서 사랑과 박애를 실천하는 간호사와 간호 지도자를 양육할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초창기 설립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었고, 간호대학 학부동 건물을 건축하는 예산이 미화 100만 불의 거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 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1999년 6월에 기공하고, 2002년 8월 말 준공하여, 결국 3년 2개월 만에 간호대학 건물을 완공하였고, 같은 해 1회 신입생들은 이미 세워진 건물에서 수업하게 하였습니다.

연변과기대 간호학부를 정의하는 것은 물론 건물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한국에서의 실습을 위해 좋은 실습지를 확보하는 등 희생의 수고를 해 오신 교수님들, 간호학부에서 공부에 매진하였던 학생들, 일선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후원금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신 많은 회원이 바로 이제까지의 연변과기대 간호학부를 정의해 왔습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적당한 때에, 김안순 권사님같이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께서는 이사장으로서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유형의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역사를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을 졸업생들과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의 임원들, 회원들과 잠시 나누으면 합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의 본 취지를 이어나간다면, 유형 학교의 폐교와 상관없이 WCNF 섬김의 정신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연변과기대 간호학부를 거쳐 가신 졸업생들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교가 폐교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 정신과 간호학을 사랑으로 전수해 주기 위해 애써 주신 교수진들과 선배들 사랑의 수고 산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선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그들을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간호 선교사들과 그들의 후학에게서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가 자신을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간호사로서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든지, 또는 후세대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든지, 보건의료에 참여하여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을 하든지, 각자가 자기 있는 처소와 일터에서 기독인으로서 신앙을 잊지 말고, 자신을 하나의 밑알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부패한 것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는 간호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세대 간호사들에게 사랑과 박애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는 간호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섬기는 이들, 후원자, 동조자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연변과기대 간호학부는 폐교하였지만,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labor of love)는 말 그대로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연변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독 간호사로서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며, 얼마나 더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일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거의 마쳐 가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딤후 2장), 그리스도의 일군은 군사와 같아서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으며 정진해 나가야 한다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부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과 화목이 전해지기 위함인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일을 할 때, 우리의 전능 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자원도 주셔서, 일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인사 말씀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총회장
안젤라 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사랑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COVID-19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그 어려움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곧 정상적인 삶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희망도 보입니다.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1998년 미국 L.A.에서 원로 기독 간호사들로 시작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지금은 한국지부와 호주 지부와 함께 지역사회와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계속 쓰임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많은 회원의 기도와 정성으로 지난 10월 2일에 캄보디아 몬로룸에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CNF) 제3 보건진료소가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세워진 진료소가 그곳 주민들의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Africa Chad에도 WCNF 제4 보건진료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또한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2001년에 개설된 간호대학도 올해 마지막 졸업식을 6월17일에 졸업생 17명과 5명의 교수님을 모시고 WCNF 국제임원진들의 참가 하에 비 대면으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으로 서운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끊임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심으로 맺어진 그 수고의 열매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땅이 번영과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의 주인이 되고, 회원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소유되시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와 헌신, 이웃을 위한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교 재단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세대교체와 차세대 회원 영입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지혜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이 계속해서 더욱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역자 여러분과 후원 교회 및 단체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회장
성영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19가 시작되어 얼굴을 맞대고 기쁨을 나누는 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지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희로서는 많은 일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과 지역사회의 임상 각 처에서 환자의 사활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일하고 헌신하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기쁘게 회원님들을 가까이 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한국지부는 작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해온 기독 간호사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우수하게 환자 간호를 수행하며 임상 간호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리더십을 함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의 특수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슬기롭게 임상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11월 20일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 선교사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작년의 캄보디아 제3 보건진료소에 이어 임헌진/권홍량 선교사가 헌신하는 아프리카 차드에 WCNF 제4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게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회원님이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동의 기쁜 마음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평양에 PUST 간호대학설립과 보건진료소 설립을 통해 북한 간호 재건이라는 비전을 주신만큼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장기사업에는 북한을 향한 활동들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 간호 재건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단이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박한 세상을 밝혀줄 차세대 후배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임원진들이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며 회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지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신축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가족들이 주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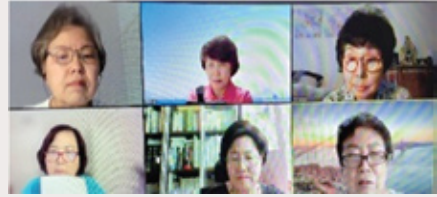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4)

WCNF 소식

01

국제본부
및 미주

1. 7월 30일 국제 회장단 모임을 갖고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 2년제 또는 4년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임원들 의견을 묻기로 하다. 유숙자 평양과기대 설립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된 총장 및 대학 사정을 알리다.



2. 7월 31일 풀러튼 장로교회에서 임헌진/권홍량 선교사가 사역 보고를 했고 이사 10명이 참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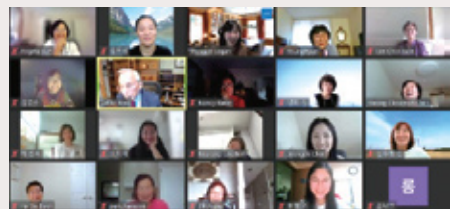
3. 8월 6일 탈북 간호 학생/간호사 모임인 징검다리 회원과 총 14명이 참석하여 Zoom meeting을 가졌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Fresno 교수이며 마리아 권 부회장의 부군 이신 권오정 교수의 7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 대한 강의를 있었고 참여자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4. 8월 8일 GMMA chair of board member인 Dr. David Roh와 회장단의 북한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운영에 대한 근황을 나누었다.

5. 8월 14일 격월로 열리는 Open to Public Prayer Meeting에서 임헌진/권홍량 선교사가 Africa Chad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다.

6. 8월 25일 징검다리 모임과의 Retreat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7월 25일(월) ~ 30일(금)까지 Washington State에서 오대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갖기로 하다.

7. 10월 1일 교육위원회 주최 징검다리 모임과의 zoom meeting에서 오대원 목사님이 귀한 설교 말씀을 해 주셨고 한국, 호주 지부에서도 참가하여 총 32명이 참여하다.



8. 10월 2일 Cambodia 몬노롬 WCNF 제3 보건진료소 헌당 예배를 드리다.



9. 10월 8일 2022년에 있을 징검다리 모임과의 Retreat을 위한 준비모임을 YWAM director이신 Peter Yang 목사님을 모시고 가지다.

10. 10월 9일 순회전도단 미국 지부장이신 김주선 선교사를 모시고 기도 모임을 갖다.

11. 10월 21일 정관 개정 위원 5명이 Zoom meeting을 갖고 정관 개정 작업을 시작하다.

12. 10월 23일 콩고 피그미 족을 섬기는 최관신 선교사님이 회관에 방문하셔서 Zoom으로 간호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WCNF의 인적 자원 협조를 부탁하다.



02 한국지부

1. 2021년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On-line으로 실시하다.

- 충북대 간호대 졸업생 대상 2회(5.14, 6.16)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대상(5월 6일)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대상(5월 11일)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대상(5월 12일)



2. 한마음 기도회(평양과기대 사역 모임) : 회장단에서 5회 참석하다.(매월 셋째 주 월요일 7pm-9pm)

3. 6월 7일 유성혜, 김성갑 선교사 부부 만나 평양과기대와 북한 간호 현황에 대해 협의하다.

유성혜, 김성갑 선교사 부부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세네갈 선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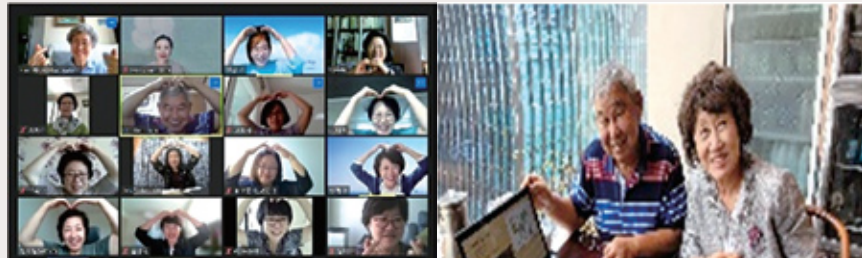
4. 6월 15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졸업식을 WCNF 주관으로 on-line으로 갖다. 연변과기대 본 졸업식에 앞서서 WCNF 미국, 한국, 중국 임원진과 17급 졸업생이 참석하여 축하인사와 선물을 증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YUST 간호대학 20년사 편찬위원 모임을 5회 갖다.
6. 6월 19일 임원 워크숍과 임원회의를 갖고 wcnf 한국지부 발전방안과 위원회별 사업을 논의하다.



7. 7월 5일 회장단은 7월 동북아 교육문화 협력 재단을 방문하여 평양과기대 이승률 총장과 최룡호 수석 공동운영 부총장과 연석회의를 갖다.
8. 8월 6일 2분기 국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아프리카 차드 제4보건진료소 지원 및 PUST 간호대학 설립방향을 논의하다.
9. 8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아프리카 차드 제4보건진료소 지원에 대하여 의결하다.
10. 9월 18일 3분기 이사회에 차드 권홍량 선교사를 초대하여 말씀과 만바지역 제4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을 듣다. 9월 19일에 성영희 회장과 유숙자 부회장이 권홍량 선교사께 구체적인 내용을 듣다.



11. 9월 25일 통일과 간호연구회 제4차 학술세미나에 유숙자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하다.

12. 10월 16일 회장단과 YUST간호대 전학부장인 이갑순 교수와 오은주화 교수와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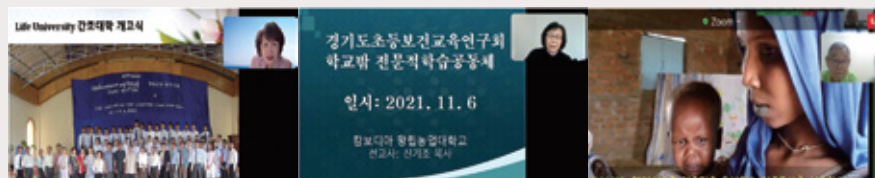
13. 10월 16일 기독교 간호사 리더십 세미나를 on-line으로 개최하다.
강사: 이혜숙 목사(대한 기독교 간호사협회 사무총장), 성영희 회장, 이병숙(계명대 교수), 전주경(서울아산병원 Unit Manager)



14. 10월 29일-30일 강릉 황옥남 부회장 자택에서 회장단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다.
- WCNF 주요사업 방향 검토 및 각종 기금 현황 리뷰
- 위원회 별 사업 보고와 3개년(2022-2024년) 계획 수립
- 정관 검토 및 개정(안) 작성



15. 11월 6일 보건교사 대상 WCNF홍보 및 선교활동을 소개하다. : 성영희 회장, 신기조목사, 권홍량 임현진 선교사
- 보건교사 대상 WCNF소개와 홍보 및 선교지의 상황을 설명하다.



16. 11월 20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로 제2차 선교세미나를 개최하다.
- 북한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이삭 목사), 차드 사역(임현진 선교사), 연변과기대발자취(오은주화 선교사), 캄보디아 좋은 학교 단기선교(김성경 간호사), 캄보디아 왕립 농업대(신기조 선교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글 | 예수전도단(YWAM) 창설자 오대원 목사님 부부

안녕하세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회원들과 징검다리 회원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품이 요구됩니다. 먼저 자비(mercy)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지요. 그 다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또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능력, 용기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COVID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담대하게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성실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갖춘 사람들이며 앞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치료자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몸과 영과 혼

을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간호사들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의 역할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장되신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음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십니다. 넷째로 이들을 위해 영적 친밀감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마다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 혼, 육을 치료하는 자가 필요한 이때 가장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 9:36)”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북한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목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었다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북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언젠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탈북한 기독교인은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한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도왔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한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강의에 새터민 간호사와 간호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케 해 주실 겁니다.

북한 사역을 위한 기반을 살펴봅시다. 먼저, 한국 즉, Korea는 남한과 북한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은 하나이고 한 민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최근 한국이 특히 젊은이들까지도 ‘소망’을 많이 잃었습니다. 다시 소망의 불을 지피 하나가 된 한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에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하나님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병존해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분열과 경쟁으로 개인과 조직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해주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북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제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큰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5분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보시도록 권합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감동과 정서도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맨 먼저 필요한 사람이 간호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치유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소생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시편 23편을 통해 3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전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말씀, 기도, 사랑, 용서, 포용, 섬김으로 북한의 문을 열어간다면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북한에 기쁨의 장막을 펼쳐가십시오.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와 세계기독교간호재단과 징검다리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 예수(Jesus, A Nurse)



글 | 홍길복 목사(해외 한인 장로교 호주 노회/ WCNF 호주 지부 후원 회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13-16)

예수- 그 이름의 뜻

우리 말로 표기하는 ‘예수’란 본래 그리스어 ‘이예수스’를 줄여서 표기하거나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어 ‘이예수스’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예호슈아, Jehoshua)’를 축약한 ‘예슈아’를 코이네 그리스어로 옮긴 말입니다. ‘여호수아(예호슈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여’(Je) -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의 접두어에 ‘호세아’(Hosea) - ‘구원하다’ ‘건지다’라는 말을 접미어로 붙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야훼 하나님 구원하신다’, ‘야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우리말에서 ‘예수’라고 발음하는 것은 라틴어 Iesus가 변형된 Iesu에서 한자를 거쳐 온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도님’의 경우처럼 존칭어로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나 다른 나라에서는 ‘Mr. Jesus’ 같은 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언어에서는 Jesus라고 쓰면서도 영어에서는 ‘지저스’ 독일어에서는 ‘예수스’ 스페인어에서는 ‘헤수스’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본래 라틴어 발음에서 J와 I가 같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 그 직책의 의미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다른 칭호 혹은 직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말 역시 그리스어 ‘크리스토스’(Christos)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한글입니다. 영어로는 Christ, 한자로는 基督이라고 씁니다.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어원인 ‘마쉬아흐’(Mashiach)를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를 지닌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 그 다양한 이름, 타이틀, 그리고 직분들

지난날 교회는 한 마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고백, 믿음 그리고 해석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는 공통적 고백과 대답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대답과 다른 표현과 설명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성서의 오래된 설명들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사야 9:6)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성서와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이 백여가지도 더 되는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됐습니다. 독생자, 임마누엘, 인자(人子), 알파와 오메가, 등등 참으로 많은 이름과 직책과 타이틀과 닉 네임

(Nick name)을 지닌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시대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이해요, 설명이요,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작은 모자이크 조각들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함께 ‘완전한 그리스도상’을 엮어 감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예수

앞에서 좀 길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독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또 누구셔야만 하는가?’ 특별히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닌 직업 속에서 어떤 분으로 그려져야 할 것인가?’ 묻고, 생각해 보고,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 간호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의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들이 매일 일하고 섬기는 직업을 동일화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호사입니다. 그분은 간호사들의 간호사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 간호사라는 전문직이 없던 때, 벌써 이 땅에 간호사로 오셨으며, 간호사로 일하셨고 섬기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기독 간호사들을 통하여 그의 간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간호사였으며, 가장 위대한 간호 사역자였으며, 모든 간호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적어도 오

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간호사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진실로 모든 인류의 간호사였습니다. 인류 모두를, 특별히 병든 자, 장애인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 간호사들로써 이미 주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하면서 주님과 저희 자신을 일체화 하며 주님의 간호 사역 속에서 저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간호사는 Nurse요, Helper요, Career요, Enabler입니다. 특별히 간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care 하고, help하고, nursing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호사 예수의 구체적 사역

지루하게 여기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서만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간호 사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 4:18-1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누 4:39)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누 4:40)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 5:12-13)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
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
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누 5:18-2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
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누 6: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
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열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
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누 7:9-10)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
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
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
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
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누 7:13-15)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
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
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누 8:43-44)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
어나거늘”(누 8:52-55)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 9:1-2)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예수께
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
버지에게 도로 주시니”(누 9:38-42)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
고”(누 14:2-4)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
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
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
나님을 찬양하니라”(누 18:41-43)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라”(누 19:10)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간호사 예수님의 사역
은 온갖 인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고치심으
로 인류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Caring, Helping, Enabling, Nursing을 통
한 Total Salvation이 바로 예수님의 간호 사역
이었습니다. 돌보는 일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보살
피는 일이 건지는 일입니다. 고치시는 일이 살리는
일입니다.

맺는 말- 우리의 역할

기독교 간호사의 역할과 사명은 간호사 예수를 따
라서만 하면 됩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일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간호사의
역할에 ‘동참’하여 ‘동역’하면 됩니다. Participate
in His nursing, helping and caring mission
& work. Be co-worker with Jesus, the
Nurse.

이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1일 WCNF Australia 지부 정기 모임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읽고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단행본을 참고 도서로 추천합니다.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Oscar
Cullman, SCM Press, 1957. / Jesus through Many Eyes, Stephen Neil, Fortress Press, 1976. / Tell us Your
Name, C. S. Song, Orbis Press, 1964. / The Bible through Asian Eyes, Masao Takenaka, Pace Publishing,
1991. / Jesus Christ in Asian Suffering and Hope, J. M. Colaco, CLS, India, 1977. / 성경에 나타난 이민자 이야기,
홍길복,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에서 드립니다



글 | 신기조 선교사

COVID-19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 가족 모든 분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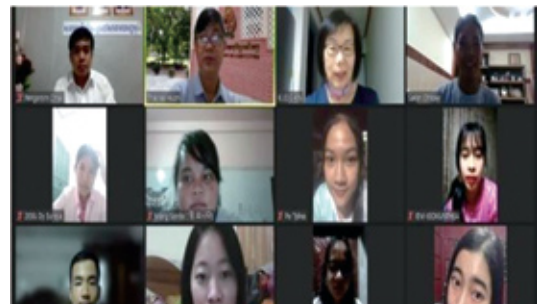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는 온라인으로 한 학년을 마무리하였고, 9월 27일부터 한 주간 학년말 시험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월 말경이나 11월에 새 학년으로 진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신입생은 언제 입학하게 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놈펜 예비 세종학당은 1학기 과정을 5월로 마무리하고 초급 1 테스트에 합격한 11명의 학생과(오전반 6명, 오후반 5명) 2학기에 초급 1 테스트에 합격한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학기에 초급 2를 개설하였습니다.

6월에 2학기 과정을 시작하여 8월 19일 종강을 하고, 26일에 초급 1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학기에 한국어 초급 1 신청자가 120여 명이었지만 실제로 출석을 한 학생들은 50여 명이었으며 종강

까지는 20-3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3학기에는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수강



신청 시 약간의 등록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받은 등록금은 학기 말에 다시 출석률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학기는 9월 28일에 시작하여 12월 16일 종강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초급1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초급 2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현지 시간은 한국 시간보다 2시간 늦습니다.)

초급 1에 등록된 학생이 13명, 초급 2에 등록된 학생이 18명입니다.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9월 27일, 3학기 Orientation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학당장 타우레악 부총장과 어학당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학년 말 시험도 있어서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었고, 또 온라인에 재 입장하는 관계로 사진을 찍을 때는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 갑자기 사란이 땅을 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옮겨갈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옮겨갈 지역에 땅을 5m x 20m 되는 땅 2필지를 샀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였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땅값이 올라서 사기가 힘들 것이기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 사란이 빛을 내서 땅을 사니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병원에서 근무할 때, 생각했던 것이 “선교사들이 가능한 한 땅을 많이 사 놓아야 나중에 후대가 일하기에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란이 산 땅 2필지로는 센터로도 동물병원으로도 적을 것이라 더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필지 정도 더 사

라고 하셔서 2필지를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부터 함께 하시는 권사님과 사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사란이 땅을 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권사님께서 “사란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한 번은 대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2필지 땅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2필지를 사란이 살 때 필지당 7,500\$이었는데, 다시 계약하려 하니 이미 필지당 8,500\$로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란이 기도하며 다시 흥정하고 흥정하여 필지당 7,500\$씩 총 6필지를 계약하였습니다. 2필지는 사란이 먼저 계약을 하였고, 4필지는 9월 초에 계약하였습니다. 지금 산 땅은 그렇게 많이 큰 땅은 아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사란과 동역자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일하실 땅입니다. 언제 대학교가 이사를 할 지 모르지만 사란이 빛을 내서라도 준비할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더 준비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땅입니다. 그 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4일 덕성여대를 방문하여 프놈펜 예비 세종학당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반 세종학당 지정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 덕성여대 한국어 연수 과정 및 학위 과정 장학금 제도 안내 - Global Partnership 장학생(개도국 대상 연간 4~5명 선발하며 4년간 학비 무료) 추천 의뢰와 한국어 Topic 시험에 대한 안내도 받았습니다. 만약 덕성여대에서 일반 세종학당으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직접 세종학당으로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덕성여대에서 일반 세종학당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이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세종학당(한국어 교실)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

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농업대학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 **졸업생 사란(수의사)**은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원했지만, 우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박사학위와 전문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를 찾기가 어려워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일단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본 대학의 수의대학장이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전남대 최지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양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지혜 교수가 9월 1일 서울대로 이동하게 되어 아마도 서울에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졸업생 체잉원(농기계과 졸업)**도 본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 스페인으로 연수 과정을 떠났고, 내년 2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 **수의대 2학년인 싹 띠(남)**가 시골집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을 받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 **임평강 선교사**가 1학기에 초급 1 테스트에 통과한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주 2회씩 7월 23일부터 2학기 중강 때까지 수업하였습니다. 임평강 선교사 가족도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영어선생님인 줄리안과 안지넷 선교사**는 프놈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필리핀센터에서 현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의 상황이 좀 나아져야 돌아와서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언제나 가능할지 기도할 뿐입니다. 프놈펜에 가도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던 학생들이 시골에 가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자라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요.

기도제목

1.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모든 선교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2.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3. 프놈펜 예비 세종학당 3학기가 잘 마무리되도록
4. 세종학당 3학기에 등록한 학생들 초급 1: 13명, 초급 2: 18명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5. 내년에 일반 세종학당으로 전환되도록
6. 사란의 박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학에,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7. 체잉원의 석사과정과 스페인 연수 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도록
8. 자취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싹띠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중에 거하도록
9. 시골에 가 있는 로왓, 처위, 윤 윤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 중에 거하도록
10.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줄리안과 안지넷 선교사가 은혜 중에 거하도록
11. 임평강 선교사 가족이 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12. 하나님께서 새로 구입하게 하신 땅(감뽕치낭) 6필지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13. 모든 검진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신기조 선교사를 후원하실 분은 WCNF 계좌로 지정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후원 안내 참조)

봉헌예배를 드리면서



글 | 성진숙 선교사

수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며칠 전에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작은 나무 사진 액자와 편지 한통을 펴보면서 다시 한번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1999년 8월 1일로 공군 제대를 하고 9월 중순 경에 YWAM에 선교사 훈련학교(COTS)로 떠날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던 저의 딸이 준 선물입니다. 돌로 접히는 작은 액자 안에는 딸과 같이 찍은 사진 2장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엔 자기를 하나님의 딸로 키워주고, 믿음을 상속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적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그때 하

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Go! Be my disciple! I will care of your daughter better than you can take care of her yourself)에 순종하며 떠나야 했던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혼자인 딸만 뒤로하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수 1:9 말씀과 편지가 참으로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딸도 YWAM DTS 선교 훈련을 받고 일본에 간사로, 그리고 중국 과기대에 6기 월 단기 선교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변함없이 저를 선교지에서 지켜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나 기관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WCNF를 통하여 진료소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이 건축을 하는 1년 동안은 참으로 많은 역경과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지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잘못 생각으로 내 몸을 혹사했습니다. 처음 건축가로 인하여 약 5만 불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고, 그 후로도 매일매일 건축가들과 일군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렵히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괜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설치고 있었지요, 입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선 실천이 안 되고 있었지요. ㅠㅠㅠ

도 사택도 모두 합해서 그 어느 다른 건축한 건물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처음 계획의 3배의 건축 현금도 모두 채워주시는 역사를, 아니 약속을(빌 4:19)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간증할 것이 많습시다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골 1:9)과 사랑의 후원으로 오늘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 10. 3

건축이 90% 정도 완성되었을 때에야 깨닫게 되었지요. 다른 모든 선교사님에 비교해보니 난 정말 행복한 건축을 했다는 것어요. 캄보디아 선교사 선배님들은 다 겪으셨고 알고 계셨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 기도 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 하나님의 땅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처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헌신에 절대로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어요. 진료소도 교회



글 | 서은성/김민선 선교사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백성의 반역과 배신을 견디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안전의 위협들과 코로나의 어려움이 잠잠해지고 이 땅은 조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듯하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애통도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A가 알아가는 생명의 떡 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요일 저녁이면 말씀을 듣기 위해 힘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우리 집까지 어김없이 찾아오는 모슬렘 청년 A를 보면서, 다른 어떤 필요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김민선 선교사와 나누는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슬람 신앙을 평생 소유한 그에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떡'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의 눈에서 보았던 A의 빛나는 눈동자는 마음을 울립니다. 또한, 늘 성경을 공부해 왔던 S와 D 청년들도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제 오로지 말씀의 풍성한 역사만을 바라봅니다.

반가운 소식은 모슬렘 청년 Ab도 마음을 열게 되어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이제 막 스스로 우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모슬렘 청년이 복음 성경 공부를 위해 우리 집에 오기까지는 그 안에 이미 자리 잡은 복음에 대한 많은 적대감과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자튀김과 오프라이스의 행진

모슬렘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스러운 추억은 서은성 선교사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선 선교사가 직접 요리해 준 특선 코너 감자튀김과 오프라이스가 베풀어졌고, 김민선 선교사가 요리하기에 고난도인 피자도 식당에서 주문하여 학생들을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교제가 이어지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어떤 이는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받았던 진심 어린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길이 늘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강박하고 어려운 땅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섬길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이 길이요 진리임이 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소망하는 한해

성경 교육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는 서은성 선교사의 사역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 기독교 교리 교육이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리 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학교 교육은 대부분 이해 없이 무조건 외우기 형태의 교육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하이텔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드러내고 학생들의 심령을 일깨워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지식과 감동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은성 선교사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중심 사역이 학생들 안에 드러나게 되어 어렵고 힘든 마을에서 온 아이들, 자신의 일상마저 잘 돌아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까지 삶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성경 교육 사역, 학생들의 삶의 현장까지 내려가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라온 지호의 군입대와 유나의 고3 생활

지호는 지난 9월 27일에 파주 1사단 신병 교육대에 잘 입소하였습니다. 낯설고 힘들었던 첫 몇 주간을 보냈고, 이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하는 동안도 저희는 무엇보다 지호의 신앙과 삶을 걱정하였었지만, 지호는 나름대로 신앙과 삶에 있어 성숙을 이루어 낸 모습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것을 멀리서 오직 기도로 마음을 더합니다. 또한, 당차게 고3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 대학 원서를 넣으며 아프리카 니제르에서의 마지막 1년을 아쉬움으로 보내고 있는 유나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깊은 관심과 기도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11월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서은성/김민선 선교사 드림



서은성 선교사를 후원하실 분은 WCNF후원계좌로 지정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후원 안내 참조)



글 | 권홍량, 임헌진 선교사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차드는 여전히 덥고 먼지와 함께 유목민들이 이끄는 낙타들과 소떼들과 양, 염소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가난을 힘들어 하는 차드에 암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가 코비드-19로 몸살을 하는 가운데 차드는 약간은 동떨어진 지역 같아서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코비드-19 확인이 쉽지 않아 조심하고 있지요.

1. 차드로 복귀한지도 벌써 한 달을 지나 두 달로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엿그제 11월 22일에는 말바 공동체에 세계기독간호재단(WCNF)후원으로 보건진료소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추장님들 그리고 전체 마을들을 관장하는 큰 추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되어 인근 주변 마을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보건소 전기를 위해 태양광 전기와 우물을 후원하여 주신 Honey & Butter 재단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은 자동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프로모션하는 4륜 구동 새 트럭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Hand of Jesus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말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 현대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농업 자립 공동체입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이를 소망하는 비전을 가진 차드의 젊은 형제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여

러분들이 있기에 든든하고 감동과 감사함의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전 세계가 다시 들어가는 가운데 차드도 조금씩 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백신을 맞은 저희들이지만 많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늘 감동과 은혜의 소식들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아내 임 선교사는 팔과 목 뒷부분에 심한 통증과 함께 저림이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음식사역인 오병이어 사역은 함께 하는 현지인 자매에게 맡기고, 불어 성경 90일 통독 교재를 번역과 편집을 끝내고 간편한 mp3 파일로 바꾸어 현지인들과 통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또한 말바공동체로 이주를 위한 준비와 여러 가지 농산물 특히 범싹을 실험하기 위해 차드를 방문하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로 바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차드 현장... 지금은 조용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함을 유지한 채 내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뜨거움과 함께 올해에는 가뭄과 홍수와 더불어 더욱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차드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바 공동체는 말씀 드린대로 범싹 부착기와 비료가 도착하고 실험 재배를 위한 재배지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들을 구입하여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예배와 공연, 그리고 여러 미



영양이 부족한
오르탕스
국가대표선수



만바공동체 전경



태양광판 설치



보건진료소 기공식



막 태어난 염소새끼



학교장과행정담당교육

탕을 위한 다목적 예배당 공사를 다음달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6개 센터내의 초등학교들은 자립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한 교사비용절감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영성을 위한 성경 암송 대회를 여러분들이 후원하여 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구 클럽은 2021년 최종결승을 치르고 내년 스케줄을 조정중에 있으며 육상은 국가대표 오르탕스를 비롯한 팀이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는데 워낙 영양 부족으로 인한 체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영양 공급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차드 사역을 돕기 위해 농업과 직업 교육, 그리고 영어교육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단기 팀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준비가 잘 되어서 은혜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12월 기도 제목입니다.

1. 차드

- 1). 차드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이번 기회에 믿음을 가진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국가로 변화되도록.
- 2). 코비드-19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백신의 접종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도록.
- 3). 너무나 열악한 경제로 인한 식량난에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하여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2. 사역

- 1). 저희 부부의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여서 지속적인 사역으로 차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 2). Bobcat, 제빵 기계, 등 필요한 장비들이 마련되고, 만바 공동체내에 보건센터와 치과가 일정대로 진행이 되며, 함께 하는 형제들이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과 공동체 의식으로 걸러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 3). 만바 공동체의 안전과 베행사와 여러 가지 채소들의 실험재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 4). 세워진 일곱 센터의 학교 학생들과 몇몇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도록
- 5) 12월에 방문하는 단기 팀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일정이 잘 진행되어 차드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에 사랑의 빛진 자 된
권홍량, 임현진 드림
tchadmissionpartner@gmail.com

연변과기대 간호학부의 알파와 오메가



글 | 유숙자,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대외학부장

2021년은 연변대학과학기술학원(연변과기대) 간호학부가 개교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간호학부는 타 학부와 달리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의 첫 사업으로써 연변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들을 파견하는 등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육한 학교입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은 2000년 6월에 간호학부동 건축을 착공하여 2002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01년 3월에 중국 정부의 간호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5년제 간호대학 과정으로 인가 받아 9월에 첫 입학생 23명으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니 20년간 잘 기른 첫 자식을 갑자기 잃은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운 대학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곳이 명문대학으로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간호학부는 교수 40여 명의 날줄과 학생 346명의 씨줄이 정성스럽게 짜인 비단 같은 학부입니다. 이 제자들이 중국,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간호사로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과 교수님들의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년간 간호학부가 길러낸 졸업생들은 모두 346명이며, 중국, 한국 외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48%,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이 7%, 그밖에 개인기업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20% 정도 됩니다.

그동안 연변과기대 간호학부를 도와주신 많은 분과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호학부의 교수진은 그동안 전임 교수로 수고하신 분들이 40여 명이 되지만 모두 자비로 봉사하고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몇 분들은 그 임기가 있어 한국의 대학교수들과 같이 장기 근무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동안 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강의를 채우기 위하여 여름학기 및 초청 강사, 겸직 교수, 임상 지도 강사, 시간강사로 많은 교수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초창기 교육 기자재는 미국의 자선 단체와 기관들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도서는 주로 한국의 현

문사와 수문사로부터 전과목의 도서를 기증받았습니다.

01급에서 05급까지 최고의 간호사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에서 임상 실습을 위해 처음으로 고려 대학교가 학생들을 초청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병원들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06급 이후부터는 중국 간호사 국가고시로 인해 길림대학 제1 병원, 북경협화병원, 연변뇌과병원, 연변대학병원, 연태위황딩병원, 천진 의과대학 총병원 등 중국 최상위 병원들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임상실습 하는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거할 처소가 없어 절박한 상황일 때 기꺼이 빌라를 제공해 주신 김안순 권사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말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 40~50% 정도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단체로는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지원해준 WCNF와 초순 재단, 대양 장학금, 부용 장학금 등이 있으며, 개인 지원으로는 김순자, 김안순, 한혜진 등 여러분이었습니다. 특히 WCNF에서는 외방 교수를 제외한 중국 국적 교수들에게 생활비 및 연구비 등도 보조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심포지엄과 연구 학술 분야에도 본 학부는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2005년 첫 간호학부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해 한국과 일본 등 간호협회, 학회 회장님들을 비롯해 유명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학술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연길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간호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통해 본 학부를 알리고, 한국과 중국 간호사들 간 교류를 확장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0년 연변 지역 내에 간호사들의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교육원을 개설하였으며, 초대 원장에 오경옥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2010년 봄학기에는 연변 지역 각 병원의 간호지도

자들을 대상으로 고급간호관리자과정을 개설하여 연변 지역의 간호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을학기에 윤성숙 교수가 임상의학영어(PME) 과정이 개설하였고, 2011년에는 유인자 교수가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고급 간호관리자과정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과정은 한국 병원들(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과 너싱홈 그린힐, 보바스병원 등 노인간호시설 등을 견학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간호학부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초창기부터 10주년까지 기념이 될만한 물건과 사진을 수집하여 간호학부 역사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개교 10-20년간의 간호학부의 문서와 홍보책자, 출판물들을 보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자료들은 강원도 둔내에 연변과기대 동북아 플랫폼이 세워지면 그곳에 간호학부 역사전시관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서 첫 사업으로 시작한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섭섭함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낸 알곡들이 각 처에서 작은 촛불로 세상을 비추어주기를 기대하며 이름도 없이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WCNF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구의 몸으로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오가시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이송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 하십시오.

2021년 10월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대외학부장, 유숙자

나의 나 된 것에 감사



글 | 김혜랑 Ezra



내가 간호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다
미국에 고2때 이민 와 LA 한인타운에서 살면
서 고등학교 때 ESL만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다.
당연히 공부를 잘 할 리가 없다. 공부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결혼하고 큰애가 자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애
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인내심을 배우게 하셨다. 경
계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호사 공부를 해보라
는 얘기를 들었다.

주님은 이사야 55:8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길
이라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지라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깨달
아졌다. ‘그러면 주님, 주님만 믿고 시작할 테니 주
님 뜻이면 되게 해주세요.’하고 처음 LVN 과정부
터 시작했다. 1년 동안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서 간호 공부와 실습을 했다. 밤을 새우고 시험 준
비를 하고 잠을 안 자고 새벽기도 갔다가 시험을 본
적도 많았다. 반에서 공부는 잘하지 못했다. 라이
센스 시험은 더 어렵다는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하루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께 물었다. “주
님 저 공부도 못 하고 영어도 못 하고 진짜 간호사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뭔지 아
니?” 그제 뭘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답을 주셨다.
“마음이란다,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잊지 마라.” “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마
음은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LVN 라이선스 시험이 코앞에 있던 어느 날 새
벽기도 때 태우고 다니는 자매가 키우는 개가 없어
졌다며 어디 자전거 빌릴 데가 없나 연락이 왔다.
차가 없는 자매라 자전거를 타면서 집 주위에 개 사
진 포스터를 붙이려고 한단다. ‘앗! 나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야 하는데 하필 지금.. 그러면서도 미국
에 혼자 유학 와서 개의 존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일 텐데 늦어서 개가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어
떻게 간호사가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남편의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그 자매와
포스터를 붙이고 개를 찾으러 차를 타고 동네를 돌
아다녔다. 이를 후 포스터를 보고 연락이 와서 개
를 찾았고 LVN 시험을 패스하고 나이 40에 간호

“혼자 불평하면서도 힘들면서도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참 좋다. 내게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맞을 줄이야 주님이 켈 잘 아셨으리라. 나의 간호사 된 것에 정말 감사하다!”

사가 되었다.

양로병원에서 RN supervisor 밑에서 LVN 일을 하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 오더를 받으려면 RN은 되어야겠다는 맘을 갖게 하셨다. 같이 LVN 공부를 했던 언니와 RN 공부를 시작했다. 기독교 학교였는데 기독교 클럽이 없었다. 나는 주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Nursing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매주 한 번 모임을 가졌다. 시험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혼자서라도 한 번도 모임을 빠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 해야 하는 것 대신 간호 클럽을 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해주게 되었다. 그 무렵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교수님들과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 간호 클럽을 통해서 덕을 본 것은 나였다. 비록 공부 못하지만,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나를 교수님들은 알아 봐주셨다.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주의 은혜로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다 같이 옮겨서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RN 라이선스 시험을 보고 나서는 ‘RN 되면 큰 병원에 가서 짧게 3일 일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또 내게 말씀하셨다. “헤랑아, 내가 너 떨어뜨리면 RN 될 수 없어, RN 안 되면 큰 병원이고 어디고 갈 수도 없어, 절대로 돈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씀에 내가 그동안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간호 공부했음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나는 RN 시험에 붙었고 하나님께서는 양로 병원에 나를 계속 남게 하셨다. COVID pandemic을 겪으면서 120여 명의 환자가 60여 명으로 반이 줄었다. 나도 COVID-19에 걸려서 한 달 넘게 고생하고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Red

zone이라고 COVID 환자들만 있는 구역을 맡아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증세가 심한 환자는 내가 돌보고 먹여드리고 갈아 줄 테니 동료들은 다른 환자들을 보라고 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진짜 내가 가장 증세가 심한 환자를 혼자 돌보는 것을 보고 하나 둘 나를 돕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가족과 대면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COVID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영상 통화를 자주 해드렸다. 내가 한 달도 못 살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3달이나 생명을 연장했다며 동료들은 그런 내 모습을 좋게 봐주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환자와 스텝을 두루두루 잘 아는 간호사가 나밖에 안 남은 연고로) 경험 없고 부족하지만 ADON(부간호과장)이 되게 하셨다.

요즘 다른 병원도 간호사가 모자라서 많이 힘들지만, 양로 병원은 더 심하다. 그래서 ADON이지만 RN supervisor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LVN 대신 약을 돌리기도 한다. 집에 들어오면 앓을 기운도 없어서 누워있다. 누워있으면 새로 들어온 RN supervisor가 아침저녁으로 전화해서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래도 물어봐 주는 게 감사하지 않은가?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간호 일 외에도 간호사 스케줄 짜는 것, 동료들 불평 들어주기, 가족들 상대하기, 치매 환자 달래기, 그렇게 여러 종류 사람들을 상대하는 스트레스까지 일이 많은데도 또 혼자 불평하면서도 힘들면서도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참 좋다. 내게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맞을 줄이야 주님이 켈 잘 아셨으리라. 나의 간호사 된 것에 정말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기



글 | 김민주(현 시립아동병원 간호사, 강릉영동대학교 졸업)

■ 대한민국 입국 초기

대한민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웠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아는 게 우선이라 생각돼, 낮에는 컴퓨터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부터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말하는 간단한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손님은 글라스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로 알려달라고 했고, 그분들은 저더러 “조선족이냐?”라고 물어보며 불쾌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대학 진학을 위한 노력

적성이 잘 맞는 간호학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해 잘살고 있는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원장님께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김 원장님은 저에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고,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대안

학교를 알려주셨습니다. 소개받은 대안학교를 찾아갔는데, 북한에서 얻은 학력 수준으로는 기초지식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준에 맞춰 기초 과정부터 가르치는 다른 대안학교를 찾아가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전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도 몰랐던 저였는지라 당연한 결과였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탈북 학생이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인문학 강의에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책 내용은 어려웠지만, 동양고전을 비롯한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남한에 있으면서도 북한식으로만 생각하던 저의 방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북한에서의 경험이 남한 사회의 장점을 발견하는 창이 돼 줬습니다.

■ 공부하면서 배운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렸고 기회가 주어졌습

니다. 간호학과 진학 후에는 학과에 관련된 기초지식이 부족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녹음해 쉬는 시간과 주말마다 복습했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동기들과 교수님께 따로 찾아가 여쭙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는데, 때로는 꿈속에서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저를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부터 평점 4.0의 성적이 나왔고, 천 일장학회에서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공부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탈북 도중 강제로 복송 났습니다. 이 아픔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제가 없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게 인생이란 것을 이때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터널 뒤에 있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던 탈북 대학생 선배들을 통해 제가 이 땅, 대한민국에 빛을 진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의 강제 복송에 이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매일 도서관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 출산과 산후우울증

대학 졸업 후에 연년생 두 아기로 인해 산후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엄마가 됐기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북한 대학생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아나돗 교회의 공동체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 저의 육아를 도와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 위기와 기회

지난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집에서 육아만 해오던 저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서울시립 동부병원으로 검진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 내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 입사 지원을 했고, 합격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공동체 문화

취직 이후에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은 병원 취업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입국 초기와 다른 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에는 이해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는 태어난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선배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더니 그들도 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게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개인의 꿈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그 사회의 꿈도 같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한민국 정착 생활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는 북한에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가 증진된다면 진정한 자유에 대해 알게 해준, 대한민국에서 맺어진 인연에 성실히 보답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신입 평생회원

평생 회원은 본 재단의 교육, 봉사, 선교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으로서
일백만 원 이상이나, 미화 일천 불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입니다.

미주 및 해외 신입 평생회원 (2021년 6월8일 - 2021년 10월 28일)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569	박애랑	Cal State LA 간호대동문	570	김영희	라구나힐스교회 권사
571	Jay McQueen	Angela Suh 총회장 사위	572	Nancy Kwon	부산대 간호대 동문



569 박애랑
Cal State LA 간호대동문



570 김영희
라구나힐스교회 권사



571 Jay McQueen
Angela Suh 총회장 사위

한국지부 평생회원 (2021년 5월 1일 - 2021년 10월31일)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606	이영근	병원간호사회	607	조문숙	분당서울대병원
608	박보라	세종충남대병원	609	서영경	서울대간호대학 동문
610	김은주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교수	611	김수진	가정간호사
612	정귀남	강릉영동대학 박사	613	임은영	서울아산병원



606 이영근
병원간호사회



607 조문숙
분당서울대병원



608 박보라
세종 충남대병원



611 김수진
가정간호사



612 정귀남
강릉영동대 박사



613 임은영
서울아산병원

미주 및 해외 지부 후원금 내역

(2021년 6월 8일 - 2021년 10월 28일)

후원교회

성서장로교회(\$400) 열린문교회(\$800)
남가주기쁨의교회(\$600)

선교후원금

강정옥(\$1,600) 오재선(\$500) 김익현(\$ 658.54)
Linda Lee(\$500) Yong H. Kim(\$100)

북한선교

진동근(\$80)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이갑순(\$5,500)

NKNRF

유미영(\$200) Helen Yoon(\$100)

비전 회비

신지은(\$4,000)

평생회비

권미련(\$300) 김영희(\$1,000) 박애랑(\$1,000)

운영 지원

Terry Choi(\$2,600) 김명자(\$1,600)
송하영(\$1,300) 한진범(\$2,800)

옥합 회비

조종희(\$500)

장학금

서승렬(\$2,000)

이사회비

유정숙(\$600) 강정옥(\$400) 최윤경(\$600)
마리아권(\$600) 신지은(\$400) 최은경(\$1,000)
김명자(\$400) Jennifer Kim(\$700)
박혜숙(\$600) 장사라(\$400) 장근숙(\$300)
이영현(\$400) Stella Park(\$500)
고향림(\$1,200)

지정후원금

기도회 및 이사회 식비:

박혜숙(\$150), Grace Chung(\$100)

화관 painting 비용 후원: 고향림(\$1,500)

화관 지붕 교체 후원:

Angela Suh(\$1,000), 박혜숙(\$1,000)
마리아권(\$1,000), 이영현(\$200)

마리아권 장학금: 권오정(\$8,500), Ruth권(\$500)

이갑순 교수 후원: Blackbaud giving fund(\$5,500)

성진숙 선교사 후원:

Christine Suh(\$400), 손명주(\$250),
김명자(\$1,000), Terry Choi(\$200),
생수교회(\$1,700)

박순복 선교사 후원: 강정옥(\$4,500)

징검다리 모임 후원:

강정옥(\$2,000), 광정자(\$1,000),
김연수(\$5,000), Ezra Kim(\$200)

서은성 선교사 자녀 후원: 박혜숙(\$600)

다니엘 선교사 자녀 후원: 박혜숙(\$600)

최관신 선교사 후원: 김명자(\$500), 박혜숙(\$500)

네팔 방영숙 선교사 후원:

박경애(\$100), 김명자(\$1,200), 박혜숙(\$500)

과테말라 갈릴리 공동체 후원:

박혜숙(\$500), 유진박(\$500), 박기현(\$1,000)

임현진 선교사 (차드 축구팀) 후원: 박정우(\$1,400)

차드 진료소 후원

박호순(\$1,500) 박정우(\$800)

Christine Suh(\$3,000) 김미란(\$3,000)

이근순(\$1,000) 김명자(\$1,000) 손난주(\$300)

이일순(\$500) 박석규(\$1,000)

Salinas 장로 교회(\$2,000) 오명자(\$1,000)

강영순(\$100) 홍찬길(\$300) 박기현(\$1,000)

박혜숙(\$1,000) 권기필(\$1,000) 백정호(\$200)

이영현(\$200) 홍인순(\$100)

Grace Chung(\$100) 김병연(\$500)

장윤재(\$1,000) 한윤자(\$500)

Jay McQueen(\$500) 신정연(\$200)

전영신(\$1,000) KarenLieu(\$300) 심혜성(\$200)

한국지부 후원금내역

(2021년 5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북한간호사업 재건기금(NKNRF)

고진숙(6만) 광인재(6만) 김소연(12만)
엄봉순(12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권지혜(18만) 김경숙(6만) 세대로교회(40만)
박은정(12만) 이갑순(100만) 이영미(6만)
이인희(6만) 전인숙(5만)
부산기독간호사회(30만)

옥합회비

김일란(12만) 신현숙(24만)

평생회비

강명희(6만) 강옥남(10만) 김은주(10만)
김양남(6만) 김영아(12만) 김수진(100만)
김종경(10만) 박금실(10만) 박보라(100만)
서영경(10만) 이영근(100만) 조문숙(100만)
박수경(60만) 한선규(6만)

비전회비

김옥인(60만) 정정자(12만)

캄보디아 장학금

문은숙(10만) 양혜리/이우일(30만)

선교/사업 후원

강명미(12만) 김대희(6만) 김경순(12만)
권인각(6만) 김영희(6만) 김진자(6만)
김귀자(6만) 김현주(6만) 김희정(12만)
민자경(6만) 반신자(7만) 서강유(6만)
오경화(12만) 오은경(6만) 오유미(6만)
서정윤(6만) 양영란(30만) 우진경(12만원)
안춘지(6만) 이두임(6만) 이정옥(18만)
이홍자(20만) 이혜숙(10만) 장말란(18만)
전은경(18만) 조은희(30만) 최동희(6만)
황옥남(30만)

지정후원금

캄보디아 제3 보건진료소 후원

박형란(50만) 유숙자(50만)

김종양선교사

박형란(50만)

이영현미국본부재무부장 서울늘푸른침례교회(240만)

차드 제4 보건진료소 후원

강명미(50만) 강윤숙(100만) 강채원(200만)
강현숙(10만) 김경숙(20만) 김근아(10만)
김덕천(50만) 김윤경(20만) 김정순(100만)
김정희(10만) 김희연(10만) 나은희(10만)
남윤미(10만) 이영현 미국본부재무부장(100만)
무명 (10만) 동광분(10만) 박은숙(20만)
박주양(10만) 박현유(5만) 서미란(25만)
성영희(100만) 심인주(10만) 안숙이(30만)
안정미(5만) 양영란(20만) 유숙자(50만)
이병숙(100만) 이순규(20만) 이은숙(50만)
이인혜(50만) 이정희(50만) 임은영(100만)
전명자(20만) 정선영(50만) 정귀남(100만)
조미경(20만) 최영순(20만) 최정숙(100만)
최종흥(30만) 최현희(20만) 허수경(10만)
황옥남(50만)

임원회비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연간 40만원이며 그 외지역은 20만원임)

강명미(20만) 강채원(40만) 김경숙(40만)
김정희(40만) 김현옥(20만) 박언아(40만)
서동희(20만) 이해란(20만) 이홍자(20만)
장말란(20만) 정정자(20만) 조미경(20만)
전은경(40만)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 지부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 Korea

TEL 02-764-1227 FAX. 02-764-1252

wcnfkorea@hanmail.net

(우)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츄리 오피스텔 910호

회원가입신청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집 전화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		
	이메일	출석 교회		
	주소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필요 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CMS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기타 월 () 만원	
	☐ 평생 회원(회비: 일백만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비전 회원(회비: 일천만 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지 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 후원 (이름 명시) 선교지 학생 장학지원, 북한 간호 재건, 운영지원, 기타 (내용명시) 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생 회원과 비전 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 으로서 비전 회원은 명예 이사로 추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추천자:)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입금계좌안내 】 【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우리은행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신한은행 100- 031 - 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국민은행 089501- 04- 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입금은행에 체크해주시고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전화,문자,e-메일)	
---	---	--

CMS 출금 이체 신청서

CMS (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본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의 감독하에 출금은행에서 WCNF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수납기관

수납기관 명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대 표 자	성영희
사업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사업자등록번호	210 - 82 - 78154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금융기관 명		출금계좌번호	
신청인 명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주소		예금주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신청인 휴대전화	
월 입금액	원	출금 시작 년 월 일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 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5년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TNB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 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주)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회원가입신청서(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정보	성명	영문	생년월일	
	Name	한글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직위	
	이메일		출석교회/직분	
	주소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0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X표를 하십시오. \$10 () \$20 () \$30 () \$40 () \$50 () 기타 \$ ()	
	☐ 평생 회원(회비: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비전 회원(회비: \$10,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후원금은 선교지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후원(이름 명시), 선교지학생 장학지원,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 운영지원 기타(내용명시)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양과기대에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Check은 WCNF 앞으로 쓰시고 본 신청서와 함께 재단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으로 직접 보내실 때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 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바랍니다. -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	---

- 비전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10,000 이상 납부한 회원이며, 본 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 평생회원은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코자 하는 회원으로서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입니다.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날짜:

WCNF 본부 및 각지부

* 각지부는 지역별 지회나 분야별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 WCNF 재단

이사장	이송희
이사	최명희
이사	강홍순

■ 국제 본부

1946 w 147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 8620
e-mail : wcnfusa@gmail.com

총회장	안젤라 서
제1부회장	마리아 권
제2부회장	조인숙
사무총장	김명자
감사	이일순
감사	배옥례
상임이사	유정숙, 강정옥, 김연수, 박혜숙, 신지은, 이영현, 장사라, 스틸라 박, 제니퍼 김, 에즈라 김

■ USA 지부

Alabama	채정자
Boston	조종희
CA, Central	권마리아
CA, North	김복상
CA, San Jose	이일순
Chicago	이복선
Florida	홍찬길
Georgia	안옥자
Hawaii	구(이)순규
Illinois	이(최)순자
Maryland	양(권)윤자
Michigan	홍(남)문숙
Missouri	이(문)광자
North Carolina	김연수

■ USA 지부

New York	주명숙
New Jersey	강(최)홍순
Ohio	이명숙
Rhode Island	이(김)영옥
Texas, Dallas	최영숙
Texas, Austin	김은자
Texas, Houston	조상수
Uni. Verginia	강정옥
Washington	김지니

■ 호주 지부

e-mail :
wcnfaustralia@gmail.com

회장	최부옥
부회장	김현남
감사	천옥영
감사	류영숙

■ 캐나다 지부

회장	곽나미
Toronto	송신자
Vancouver	최영자

■ 독일 지부

회장	김연숙
----	-----

■ 뉴질랜드 지부

회장	조영옥
----	-----

■ 한국 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Tel : (02) 764-1227
Fax: (02) 764-1252
e-mail : wcnfkorea@hanmail.net

고문 이죽자, 이은옥, 백승남, 이정희
감사 강명미, 강채원

회장	성영희
부회장(NKNR위원장)	김정희
부회장(PUST 간호대 학설립위원장)	유숙자
부회장(재정위원장)	이은숙
부회장(선교위원장)	최정숙
부회장(교육위원장)	황옥남

강원도	김은주
경기도	오진희
경상남도	이병숙
경상북도	이인혜
전라남도	이인순
전라북도	김현옥
제주도	강기선
충청남도	강현숙
충청북도	한명자
광주광역시	김계하
대구광역시	이경희
대전광역시	김현주
부산광역시	정정자
서울특별시	강윤숙
인천광역시	김지윤
보건교사	이석희
보건의료소	한명자

WCNF Family Camp



- 일 정** 2022년 7월 25일 (월) – 7월 30일 (토)
- 장 소** YWAM AllM Pnewma Spring, Monroe, Washington State, USA
- 강사진** 오대원 David Ross 목사님, Peter Yang 목사님
- 수련회 참가비** \$600 (5박 6일 숙식, tour 포함)
Airport pick-up service: \$30/ 1-2명; \$15/ 3명 이상

- ▶ 신청방법: [미국, 호주 등]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 ▶ 신청기간: 1차신청: 2022.4.30까지 _ 참가비 중 \$10 면제
2차신청: 2022.06.30
- ▶ 등록비 계좌: 미주후원금계좌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입금시 _ (WCNF Family Camp신청) \$100 명시바람 / 입금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납 안됨

- ▶ 등록비 계좌: 미주후원금계좌 _ (WCNF Family Camp신청) \$100 신청완료, 반납 안됨

WCNF Family Camp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소속지부	미국(), 호주(), 한국()			e-mail	
참가비 입금여부	\$600 입금 완료() , 사전신청비 \$100 완료()				
계 좌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문 의 처	[미주, 호주]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참여를 희망하며 캠프를 위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사용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설립한 선교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 및 비전센터



캄보디아 캄땡썸 누가건강센터
(제1 보건진료소)



북한 광산촌 진료소
(제2 보건진료소)



캄보디아 몬노롬 진료소
(제3 보건진료소)



차드 제4 보건진료소(수리예정)



북한 예배당과 진료소(북한의 문이 열리는날)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통권 제 54호 / 2021년 12월 발행 / 발행인 : 안젤라 서 / 편집인 : 전은경

<http://www.wcnf.org> E-mail: wcnfusa@gmail.com / wcnfkorea@hanmail.net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안젤라 서 총회장 CP. 949-933-1287(국가번호 +1)

한국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우)06653
Tel. (02) 764-1227, FAX. 02-764-1252 성영희 회장 CP. 010-9933-2901(국가번호 +82)

호주지부

e-mail: wcnfaustalia@gmail.com
Tel. 411-879-778(국가번호 +61)